“지역민 이자 부담 줄인다” 대출금리 선제적 인하

광주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포용금융 2%p·소상공인 만기 연장금리 1%p 인하 등 ESG 경영 확대·지역밀착 사업 등 4대 중점 전략 마련

광주은행이 18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며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지역민 ‘삼중고’의 대응 방안의 하나로 대출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중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송 은행장은 ▲금리 상승기 도래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업력 강화 전략 추진 ▲채널 최적화 전략과 비용 관리 기반의 경영 효율성 제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 통한 미래 수익기반 확대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을 통한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의 경영이념에 따른 실천 사항으로 지역 중소기업·중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실천, 사회공헌활동 강화, ESG 경영 확대, 지역밀착사업 추진 등을 들기도 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고금리 시대 대출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내놓았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시중금리 인상에 대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대출 금리를 2.0%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할 때 최대 1.0%포인트를 인하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때 금리를 최대 1.0%포인트(7.0% 초과 때) 내리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대책도 포함됐다.

광주은행은 ‘지속 가능한 100년 은행’이라는 목표를 두고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키우며 질적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최근 개인·기업스마트뱅킹을 전면 개편하고 비대면 전용 고객을 전담 관리하는 디지털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손안의 금융비서’라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성과는 ‘코로나19 대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지원한 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3만897건, 1조3943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0억원, 광주시 동·서·북구에 총 1억5000만원을 별도 출연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점과 직원에 대한 시상식과 개인 자산관리(PB)·활동고객·전략대출·적립금예금 등 각 부분별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했다.

또 달빛동맹 교류 은행인 대구은행 신성우 부천지점장을 초청해 영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토스 프로덕트의 사용자 경험(UX) 원칙’이라는 주제로 토스 정희연 UX부문장(Head of UX)이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강에 나섰다.

송 은행장은 이날 “사상 첫 빅 스텝과 금융의 디지털화, 침체된 경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디지털 사업의 성숙도를 높이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100년 은행으로 성장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8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하반기 중점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실천 및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공무원 도전할 맛 나겠습니까?

취업준비자 중 공시생 비중 30% 아래로…청년 취준생 15만명 감소

올해 청년 취업준비자가 15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자 중 공무원 지망생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30% 아래로 떨어졌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취업준비자는 7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4000명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 준비생(21만명)이 6만8000명 감소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취업준비자 가운데 공무원 준비생이 차지한 비중(29.9%)도 1년 전보다 2.5%포인트 줄면서 30% 아래로 내려갔다.

교원 임용 준비생(2만7000명)도 함께 감소했다. 일반 기업체 준비생(16만8000명) 역시 2만3000명 줄었지만, 비중(23.8%)은 1년 전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은 최근 청년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호조가 이어지며 취업준비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들 사이에서 공무원 선호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일반 기업의 취업 문턱이 높아진 것도 취업준비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5월 청년층 대학졸업자는 286만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 증가했는데,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4년 3.7개월로 0.3개월 늘었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졸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5년 1.7개월로 더 길었다.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미취업자는 13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취업 시험 준비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도 34만2000명 있었다.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취업 유경험자가 처음으로 취업(임금근로 일자리 기준)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10.8개월로 1년 전보다 0.7개월 늘었다. 특히 고졸 이하의 취업 소요 기간이 1년 4개월로 대졸 이상(7.8개월)보다 길었다.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8개월로 0.6개월 늘었다.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11개월 만에 첫 일자리를 구하고, 1년 7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의미다.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근로 여건 불만족(45.1%)이 가장 많았다. 근로 형태별로 보면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이 첫 일자리의 34.2%를 차지했다.

첫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150만~200만원 미만(36.6%)이 가장 많았다. 월급 200만~300만원 미만(28.4%)이 뒤를 이었고, 첫 월급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7%에 그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보 코로나 ‘3無 특례보증’ 89% 소진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무(無) 혜택을 내건 4차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이 시행 후 석 달 동안 89% 소진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3무 특례보증’은 지난 2020년 시행 이후 올해 4차를 맞았다.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와 보증료가 면제된다.

올해 4월1일 시행한 ‘4차 코로나 3무 특례보증’은 총 보증 규모 500억원 가운데 이달 기준 89%에 달하는 445억원이 진행됐다.

4차 특례보증 대출 적용금리는 3.4%이며, 보증료율은 0.7%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보증료율 0.2%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 2200년 2월부터 시행한 1~3차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광주신보는 총 6571억원을 지원했다. 1차 5071억원(2020년 2월 시행)과 2차 500억원(2020년 12월), 3차 1000억원(2021년 2월) 등을 공급했다.

지난 3월 말 광주신보와 광주시,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4차 코로나 3무 특례보증을 위한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을 맺었다. 광주신보는 광주시와 5개 은행을 통해 총 37억을 출연받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 업종은 광주시에 소재한 도·소매업 또는 음식업을 포함한 총 58종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업체당 2500만원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 레이 EV 활용 PBV 아이디어 공모전

기아는 ‘레이 EV를 활용한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차량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새로운 맞춤형 PBV를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기아는 참여 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모 부문을 크게 ▲비즈니스(차량을 사용해 사업을 펼치는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사업자) ▲라이프스타일(일상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일반인) ▲커스터마이징(특장 비즈니스 운영 업체) 3개로 나누어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비즈니스 및 라이프스타일 부문은 다양한 차량 경험을 토대로 내게 필요한 기능을 갖춘 나만의 레이 EV는 어떤 모습일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면 된다. 커스터마이징 부문의 경우 영상과 입체 도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레이 EV를 개조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 된다.

오는 10월16일까지 공식 홈페이지(https://www.kia.com)를 통해 아이디어를 접수할 수 있으며, 기아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독창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10월 중순 예선 심사를 거쳐 10월31일 수상작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시상은 총 20팀에 이루어지며 비즈니스·라이프스타일 부문 대상 1팀(1000만원)과 커스터마이징 대상 1팀(1000만원)을 선정한다. 이외 각 부문별로 각각 ▲최우수상 1팀(300만원) ▲우수상 5팀(100만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비즈니스 및 커스터마이징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팀은 상금 지급 외에도 사업비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며, 향후 아이디어의 상품성 및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출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내달부터 비교 공시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해 금융 소비자의 이용권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 중이며 금융사별 운영 실적도 8월부터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7개 수입 생필품 할당관세 면제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수입 생필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이들 생필품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연합뉴스

청바지 유행 돌고 돈다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4층 플랙진 매장에서 바지통이 큰 청바지를 선보이고 있다. 2000년대 유행한 ‘와이드 데님 팬츠’는 현재 10~20대 Z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지역 6년 미만 창업기업 투자 유치 지원

예탁결제원 광주지원, ‘K-캠프 광주’ 워크숍

광주·전남·전북에 있는 창업 6년 미만 기업 10개사를 위한 투자 유치 지원이 추진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은 최근 창업기업 지원사업인 ‘K-캠프 광주’ 제3기 워크숍이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예탁결제원 ‘K-캠프’는 광주와 부산, 대전, 대구, 강원, 제주지역을 거점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별로 지원하는 자본시장형 혁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별 맞춤형 상담과 교류행사, 투자 유치 등으로 지원사업이 구성됐다.

예탁결제원은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업 6년 미만 기업을 지난 6월 모집했다.

공모에서 총 36개사가 지원했으며, 이달 4일 1차 서류심사와 7일 발표평가를 거쳐 총 10개사가 선발됐다.

이들 업체는 생체정보를 분산 저장하거나 폐배터리를 재자원화하고, 유전자를 통해 질병을 예측하는 등 기술력을 지닌 창업기업들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K-캠프 광주’ 제3기 협력사 ㈜스페이스점프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앞으로 6개월간 기업진단과 일대 일 맞춤형 멘토링, 사업화 등이 추진된다.

참여 기업들은 직접 투자 및 투자유치 지원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지원 등도 받는다.

예탁결제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K-캠프 광주 3기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기업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 및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중점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70.97(-4.28)
↑	코스닥	782.33(+5.61)
↓	금리(국고채 3년)	3.192(-0.020)
↓	환율(USD)	1313.40(-4.00)